

강진군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본격화

총 사업비 422억원 투입, 2026년까지 기반시설 조기 완료 목표 청년과 귀농·귀촌인 유입 이끄는 '강진형 농촌뉴타운' 조성

강진군은 미래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2026년까지 기반 시설을 조기 완료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강진군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총 사업비 422억 원이 투입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은 강진읍 임천리에 약 19만㎡(190,761㎡) 규모로 조성된다. 진입도로 확장, 주택단지 개발,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진형 농촌 뉴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임천지구 신규마을의 첫 단계는 진입도로 조성이다. 현재 편도 1차선인 도로를 양복 2차선으로 확장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과 물류 흐름의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강진군은 현재 관련 설계를 마무리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신규마을 접

근성이 대폭 향상돼 귀농·귀촌인의 정착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외부 유통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 신천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임천지구와의 생활권 연결이 기대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임천지구에는 총 179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138필지는 분양형, 41필지는 임대형으로 구성되며, 특히 임대형 주택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착률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급방식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어우러지는 균형 잡힌 마을 조성을 가능케 해 공동체 회복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현재 한



차가 진행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형 개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갈등 없는 진행과 향후 마을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함께 준비해 임천지구 신규마을은 단순한 기반시설 개발을 넘어 '주민 주도형 자립 마을'의 대표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 개발이 아니라, 강진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략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청년, 귀농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진형 농촌뉴타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군수는 "인근 마을과의 연계

성을 고려한 생활권 확대,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군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나 인공 구조와 지역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혁신 사업이다. 청년 유입과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공동체의 회복과 마을 자립체계 구축 등 다차원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인근 신천마을 주민들 역시 이번 사업을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으며, 임천지구와의 생활 인프라 공유, 공동체 간 교류 확대 등에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장성군, '1000만 장성 관광시대' 8부 능선 넘었다 올해 10월까지 881만... 지난해보다 4% 증가

장성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 목표로 제시한 '1000만 관광시대'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장성군의 누적 방문객 수는 약 88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 약 34만 명 가량 증가했다.

장성군이 이와 같은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독자적인 관광 프로젝트 '2025 장성 방문의 해' 운영이 주요했다. '2025 장성 방문의 해'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장성으로 모여들도록 기획된 연중 행사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계획 수립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올해 2월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들어갔다.

홍보대사로는 장성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29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감스트(본명 김인직)'를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감스트는 방송 광고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출연하는 등 '장성 방문의 해'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식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4~5월과 7~8월 2회에 걸쳐 시행된 '출출한 장성 여행 경비 지원'이었다. 타 지역 방문객이 여행 기간 숙박이나 식당, 카페 등을 이

용한 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를 증빙하면 1인 최대 10만 원, 2인 최대 20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고객 맞춤형 관광택시'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3시간·5시간·8시간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용 요금의 50%를 장성군이 지원해 여행객의 부담을 낮췄다. '장성 방문의 해'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등 절차를 밟은 뒤 이용하면 되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여행의 편의성을 더해 준 '명품숲 투어 어게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승용차를 이용해 축령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등산을 마친 여행객이 택시를 타고 주차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금은 '무료'다. 올해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장성 방문의 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밖에 도 장성군은 관광 명소를 여행하고 확인 도장(스탬프)을 찍은 뒤 소정의 경품을 받는 '스탬프 투어', 거리 공연(버스킹)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2026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대상자 모집 고흥군,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영입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되며,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에 대한 후계농 자금, 농

신보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 지침 등 관련 정보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 후계농)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년~2008년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

광양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가치 확산과 인권존중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

격 있는 나의 역할'을 주제로, 젠더기반 폭력의 개념과 성인지 감수성, 성적 자기결정권을 설명하고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공직자가

갖춰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위직이 먼저 성평등 인식을 실천하는 것이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이라며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운영해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양시는 11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순자 강사는 '세상과 소통하는 품

영암군,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취지

부장은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안전·보건 관리 실무 △지자체 산업재해 사례

와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판례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대책을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관리 실무 활용을 도왔다. 나형철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이 이론과 함께 현장에서 스스로 위협을 찾아 개선하는 안전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영암군 공직자 모두가 안전의 주체로 나서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2일 군청에서 중대재해 담당자, 관리감독자, 청사 유지 보수 감독공무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송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본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천연기념물 수달 2개체 입식 완료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월 12일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에 천연기념물 수달 2개체를 성공적으로 입식하며,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밝혔다.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2020년 4월 조성 후 같은 해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2022년 임시개원과 2024년 4월 수해복구 완료 등 지속적인 복원 사업을 통해 기반을 갖춰왔다. 이후 2024년 10월 수달 입식 현상 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 9월 민간위탁 운영체제를 선정, 10월 15일 정식 계약 체결 후 수달 입식 준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수달 입식은 강원도 화천군 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박사 연구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으

며, 이들 기관은 증식·복원 기술 연구와 과학적 사육관리로 서식지외보전 및 개체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트리타워전망대, 카페수달, 사계절 꽃정원,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관광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홍매화 1,500그루를 비롯해 톨립·수선화·백일홍 등 10여 종의 계절꽃이 식재되어 사계절 특색 있는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달 입식을 통해 공원의 상징성과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며 "전문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공원이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